

# 북스

Books

## 안중근·신채호 등 독립운동가들의 물적·정신적 지주 “그는 조선의 체 계바라였다”

### 대륙의 영혼 최재형

이수광 지음

넓은 시대가 깨지고 새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천재나 영웅의 탄생과 그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 독립운동을 하는 이들에게 조력자였던 인물은 민족의 영웅이었던 인물이었다.



최재형 선생

“몸으로 때우는” 일이 유일했다. 선원 생활을 했던 경험이 바탕이 돼 무역업에 종사하게 되고 이후 러시아 군대에 식량을 납부하는 조달업자로서 큰 재산을 모아 한인 자치 기관장인 도헌(都憲)으로 추대된다. 어디까지나 장사꾼이었지만 재산이 모이는 대로 교육운동과 빈민 구제를 위해 썼다. 조선의 독립과 러시아 내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재산을 기꺼이 내놓았고 직접 독립운동에도 뛰어든다.

책은 구한말 함경도 일대 일본군을 괴롭혔던 연해



1912년 최재형 선생의 두번째 부인 엘레나 페트로비나 김(오른쪽)과 자녀들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주 의병의 조직책임자 재정적 후원자인 동시에 게릴라전을 이끌었던 항일운동가, 민족 언론지 '대동공보' '대양보'를 발행한 언론인, 재러 한인 사회의 지도자 및 교육자로서의 행적을 보여준다. 더불어 노비의 자식으로서 겪어야 했던 서러움, 이를 수 없는 첫사랑 등 인간 최재형이 느껴야 했던 애절한 감정도 놓치지 않았다.

연대순으로 나열한 전기형식의 고리타분한 위인전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에 소설적인 기교와 상상력이 가미돼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한 편의 역사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또 소설 속에서 그가 걸어왔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연해주 이민의 역사와 한인 독립운동사를 볼 수 있고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근대적인 풍경도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구한말 러시아 한인 사회를 이끌어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던 최재형은 존경받는 정치인과 사회지도층 인사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랜덤하우스·1만2천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전 국민의 착한 국어책

### 건방진 우리말 달인

‘거시기’ ‘시방’ ‘아 따’는 사투리가 아니라 표절어이며, ‘곰장어’가 아니라 ‘곰장어’, ‘쭈꾸미’가 아니라 ‘쭈꾸미’가 맞다.



단어, 문법 등 잘못 쓰이고 있는 우리말을 까탈스럽게 아닌 ‘까다롭게’ 살핀 ‘건방진 우리말 달인’이 출간됐다. 일간지 교열 기자와 아나운서들의 모임인 한국언어교열기자협회의 부회장이자 20여년간 일간지 교열기자로 일한 엄민용씨가 우리말에 대한 잃어버린 자신감을 찾아주며 한국어 달인이 될 수 있는 노하우를 전해준다.

틀리기 쉬운 우리말 단어와 한자어, 버려야 할 일본말 짝짜기, 바른말을 쓰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우리말 문법,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법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수백 개의 오류를 찾아냈고, 중학교 교과서 속의 오류 사례도 일일이 찾아냈다. 〈다산초당·1만2천원〉

/이은미기자 emlee@

### 낙타 신경림 지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천성병 ‘귀천’ 중.

“풀씨가 날아다니다 멈추는 곳/ 그곳이 나의 고향/ 그곳에 묻히리라.”-조태일 ‘풀씨’ 중.

원로 시인들은 자신이 걸은 길을 되돌아 보는 시집을 내곤 한다. 세상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며 평생 보낸 이들 시인들은 한결같이 죽음을 편안한 여행길로 여기는 공통점이 있다.

어느덧 고회를 넘긴 신경림의 열 번째 시집 ‘낙타’에도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시인의 통찰이 가득하다.

신경림은 표제작인 ‘낙타’를 통해 “낙타를 타고 가



## 여행에서 깨닫는 삶과 시 철학

리라, 저승길엔/ 별과 달과 해와/ 모래바위에 본 일이 없는 낙타를 타고”라고 노래했다. 죽을 앞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아무런 미련없이 낙타가 사막을 가듯 떠나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느껴진다.

대부분의 시들은 여행지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담고 있다. 미국, 중국, 터키 등지를 끊임없이 여행하면서 삶을 깨닫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또한 이번 시집에는 그의 새로워진 시 철학이 담겨있다. 그는 스스로 “시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여해야 하며, 그 시대의 요구에 대한 해답이 되지 않아서는 안된다”는 명제를 품고 평생 시를 썼다고 말했다.

그의 시집 ‘동무’ 등에서 1970~1980년대 농촌의 아픔을 노래했다. 그는 평생 삶의 주변부를 맴도는 소외계층의 아픔과 슬픔, 희망을 노래해 왔다. 시의

배경은 늘 허름한 선술집, 폐관, 장터였다. 현실에서도 자유실천문인협회(민족문학작가회의의 전신)의 창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등 시대의 변화에 앞장섰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민요시인’이라는 칭호가 따라붙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통일이나 노동 문제를 다루지 않는 시가 어찌 오늘의 좋은 시가 될 수 있느냐”는 감압과 민요라는 틀에서 벗어나 시 쓰는 일이 즐거웠다”고 이번 시집에 함께 수록된 산문을 통해 고백하고 있다. 50여 년 넘게 현실참여적인 시를 써온 그가 밝힌 시 철학이기에 더욱 눈길이 간다.

시편들도 그의 시 철학을 담아 흡사 아이기 웅얼이를 하듯 별다른 꾸밈없이 전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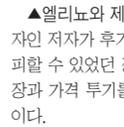
〈창작과 비평·6천원〉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 새책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현대 건축의 3대 거장으로 손꼽히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영화 같은 삶을 조명했다. 미국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 펜실베이니아주의 ‘낙수장’(Falling Water) 등 세계적인 현대 건축물이 그의 작품이기도 하다. 〈을유문화사·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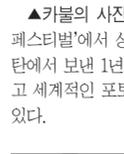
▲엘리노와 제국주의의 본 빈곤의 역사=사회비평가이자 역사학자인 저자가 후기 빅토리아 시대의 대량 기아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피할 수 있었던 정치적 비극이었다고 주장한다. 제국주의가 상품시장과 가격 투기를 선택함으로써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도서출판 이후·2만3천원〉



▲시간이 멈춰선 파리의 고서점-세익스피어&컴퍼니=에단 호크와 줄리 펠리가 주연했던 영화 ‘비포 선셋’의 배경이 됐던 고서점에서 공산주의자와 삼류시인, 범죄자에게 쫓기는 사복부 기자가 영화처럼 짜릿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시공사·1만2천원〉



▲삼성왕국의 게릴라들=김용철 변호사, 이상호 MBC 기자, 심상정·노회찬 국회의원 등 삼성의 절대 권력에 맞서 싸운 7명의 활동가 이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정리했다. 이들은 그동안 삼성을 상대로 벌였던 힘겨운 싸움은 진실이 아니면 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프레스인북·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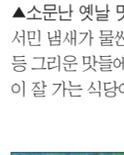
▲카불의 사진사=2007년 세계적인 보도사진전 ‘페르피냐 포토 페스티벌’에서 상을 받은 포토저널리스트 정은진 씨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낸 1년의 기록을 담았다. 동양인과 여성이라는 편견을 딛고 세계적인 포토저널리스트로 성장한 그녀의 치열한 삶을 엿볼 수 있다. 〈동아일보사·1만2천원〉



▲한국의 무협 소설사=우리나라 무협소설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역사. 한국적 무협소설의 시작과 전개과정을 서술하고 현황과 전망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은 무협소설도 살폈다. 무협소설의 표지와 삽화도 수록해 보는 재미를 더했다. 〈채플·1만8천800원〉



▲카우보이 치킨=해밍웨이 문학상 등 미국 문학계를 대표하는 굵직한 상들을 석권한 중국 출신 작가 하진의 단편 8편을 묶은 작품집. 저자의 뛰어난 유머와 특유의 페이스가 진하게 묻어난다. 〈현대문학·1만원〉



▲소문난 옛날 맛집=맛 칼럼니스트 황교의 씨가 맛집을 소개했다. 서민 밥상에 들린 풍기는 소박한 밥상을 통해 가족의 애뜻함을 찾는 등 그러한 맛에 대한 추억을 담았다. 지자체 공무원이 동네 주민이 잘 가는 식당이 맛있는 식당이라며 맛집 찾는 요령도 알려준다. 〈랜덤하우스·9천800원〉



▲별을 쫓는 아이-스타시커 1, 2권=할아버지와 외의 아름다운 이별을 그린 ‘리버보이’로 ‘해리포터’를 제치고 미국의 저명 문학상인 케네디 메달을 수상하면서 세계적인 작가로 주목받은 팀 보울러의 성장소설. 피아노를 매개로 14살 소년이 성장통을 극복해간다. 〈다산책방·각권 8천원〉

**♣ 매매 및 교환 ♣**  
전남 신도청양 일반 상업지, 숙박, 위탁시설부지(건축가) 140평/평당 700만/절충가, 상가건물 교환상담 환영  
**☎ 011-330-9365 (주인직)**

---

**대인동삼일부동산**  
☎ (대)223-1140, 5210 ☎ 011-602-2532 (광주은행 신촌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이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시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대)383-5221 ☎ 111-609-5221 (구상무대 정문)

▶ **빌딩**  
- 대지500 건물1,300 현상병원적합 차평용 매매가 75억  
- 보증금 36억 월세3,100만원 (지역최고상권) 용지2억 매7,800억 (토지, 교환가능)  
- 보증금38억 월 1,700만원 (신축) 용지1억 매7,34억  
- 보증금20억 월세4,000만원 용지18억 매7,85억  
- 보증금5억 월세2,000만원 용지7억 매7,27억

▶ **땅**  
(상무지구)  
- 2,800㎡(850평) 3.3㎡당 1,200만원  
- 727㎡(220평) 3.3㎡당 1,200만원(유형가)  
- 450㎡(136평) 3.3㎡당 850만원(유형가)  
- 330㎡(100평) 3.3㎡당 800만원(상권인근)  
- 3,593㎡(1,087)3.3㎡당900만원 (2필지)

▶ (생동동)800세대 아파트인근777㎡(266평) 3.3㎡당 350만원(수익형)  
- (동성동)273,000㎡(2만2천평) 용지 3.3㎡당 112만원(신축)  
- (생동동)대지512㎡(155평)20M 도로면 3.3㎡당265만원

▶ **병원·화원·수파·식당 기타**  
- 4,300㎡(1,300평)3.3㎡당 350만원 (동원동)고급주택  
- 근린시설(병원, 화원, 목욕탕)적합 1,652㎡(500평)3.3㎡당 700만원 (하남지구)  
- 1,200㎡(360평)3.3㎡당 350만원 (병원, 화원)시설(음식주)  
- 대지528㎡(160평)3.3㎡당 470만원 (주공)파트정문 앞(수영지구)

▶ **모텔·호텔매매·사우나**  
- 객실35개 용지29억 매7,28억  
- 객실33개 용지19억 매7,12억  
- 객실500/건물1,900 사우나 매7,89억

★24시간 전화문의 접수합니다★

**대지공인중개사**  
(공정 책임중개)  
☎ 010-8572-8985

『**담양군 대덕면 임야**』  
18032㎡ 매3.3㎡당 4만3천원  
천원 관리지역 2차선도로 150m 집(공장, 물류창고, 사회복지시설적합)

『**담양군 창평면 임야**』  
36023㎡ 매3.3㎡당 2만6천원  
2차선도로 85m 집

『**혹석동 자연녹지 집중지**』  
9300㎡ 매3.3㎡당 180만원 (물류창고적합)

『**임동 주가지역 8차선도로변 주공아파트 정문가-1번**』  
대지900㎡ 매 7억5천만원 (전사판매장, 물류창고, 사육적합)

『**충흥동 35m대로변**』  
대지920㎡ 한정식식당2층 건물있음 매9,950만원 (고급식당, 사육, 물류창고, 전사판매장, 카센터적합)

『**신안동 상업지**』  
대지339㎡ 조식식 건물있음 매2,950만원  
부동산 중개업 동업자 1명 구함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장흐름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선컨설팅평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함  
Tel: 062)973-9174, 016-757-8800

수완택지지구 200평  
청단지구 500평 200평  
전통 28억 (보4억 월2000만원)  
광복 연수장(광주) 주유소 부지  
공정부지 (담양 2천~8천평)

**분양·임대**  
첨단중앙메디칼센터 (2008년 2월 준공)

|        |      |
|--------|------|
| 53평    | 편의시설 |
| 1층 58평 |      |
| 40평    |      |

2~6층 각 166평 병의원  
7층 70평 모든업종가능

**건물 28억**  
• 광주·장성권 토지 건물 •  
투자유망물건 다량 보유(0천만원~000억원)  
062)973-9177, 010-3625-1362  
첨단지구 국민은행 주차장으로 오십시오

**한일지도판매(주)**  
☎ (06)529-1409 상동 010-2466-1409 (전)527-6310, 011-9433-6310 (광주시 동구 자산동 373-8 한일정문앞)

**2008최신 합본(광주·나주·순수·장성·담양·함평) 지번도 책 판매중**

안녕하십니까? 한일지도(주) 20주년을 맞이하여 합본책을 제작하여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작한 합본책은?**

1. **광주** 광역시 전지역 재개발·도시계획·용도지역·하남4공단 경제수목 최신지적, 신규APT 수목
2. **나주** 나주시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그린벨트 1·2차 해제수목, 나주생활동 스포츠타운 수목, 송일택지개발 지구 기지변수목
3. **순수** 나주 초록리 남양읍수목, 함평·담양·북평매가 500만 원 혁신도시 최첨단 수목, 혁신도시로 연결된 도시계획 수목
4. **장성** 화순군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그린벨트 1차 수목, 최신지적 수목, 보존지구 수목
5. **담양** 담양군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그린벨트 1차, 2차 수목, 최신지적 수목, 보존지구 수목
6. **함평** 함평군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그린벨트 1차 해제 수목, 최신지적 수목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장성·담양·순수·나주권 그린벨트 해제책은 없습니다. 이의 더 많은 부분들이 있으나 사연으로는 다 알릴수가 없어 궁금하신 부분이 더 있으신 분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판매처에서 합본책과 전화 예약주문에 한하여 힘을 더해주기 위해 50%세대를 단행하였습니다. 좋은 기회를 이용하세요.  
[영업시간] 00명 모집]